

중국, 정치·경제적 위축 우려 FTA 협상개시 강력히 요구



우리 농어업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협상단계에 충분히 마련하여 대응하고, 개방에 대비한 농어업의 체질개선도 병행하여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진진 농림수산물부 지역무역협정과장

세계 FTA 추진 동향

세계 각국은 WTO/DDA 협상의 진전이 부진한 가운데, FTA 협상 및 지역별 경제통합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부상 등 글로벌 지배구조가 변화하고 보호주의·자원 확보 등 국가간 갈등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해외시장 선점 및 수출을 통한 자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FTA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1년 11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13개의 FTA가 발효되어 이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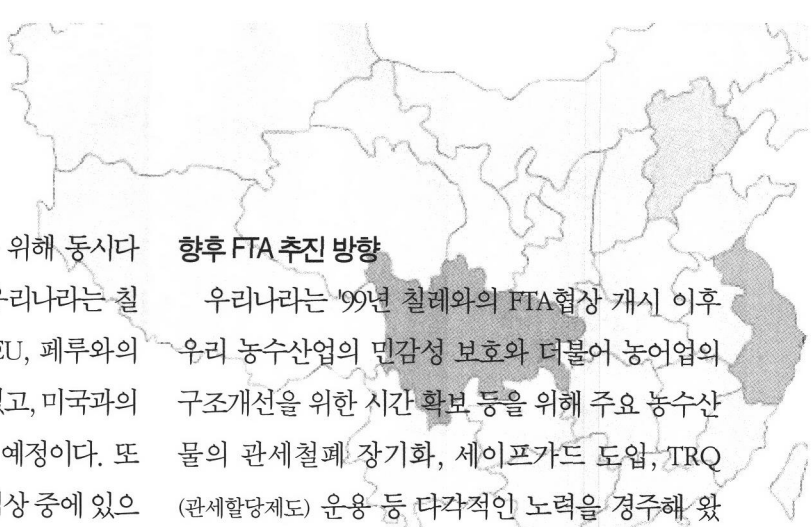
주요국별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경쟁국인 우리나라가 EU, 미국과의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과의 FTA 협상 개시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현재 EU와 FTA 협상을 위한 예비교섭 개시에 합의했고, 미국이 참여하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확대 협상 참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만과의 FTA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FTA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미 상품·서비스 등 일

부 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 동 협정을 바탕으로 이를 FTA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는 ASEAN 개별국가와의 독자적인 FTA 협상에 돌입했으며 페루, 콜롬비아, 중미 6개국과는 FTA 협상을 타결하여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그 영향력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TPP 확대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동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수출 확대는 물론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을 견제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노리는 분위기다. 한편, 지역경제공동체 창설을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와 페루는 칠레, 콜롬비아를 아우르는 중남미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 중이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구소련 국가를 결집해 유라시아 경제연합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농수산물협상 동향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의 87.9%(10년)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장선점, 자원확보 등을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와의 FTA(7건 45개국)가 발효되어 이행되고 있고, 미국과의 FTA는 국회비준을 마치고 곧 발효될 예정이다. 또한, 호주, 콜롬비아, 터키와의 FTA는 협상 중에 있으며, 중국, 한·중·일, 러시아, 베트남 등과는 FTA를 준비 중에 있다.

이미 발효된 7개의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물은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대비 26.2%를 차지하고 있다. 곧 발효 예정인 미국까지 포함하면 49.3%를 차지한다. 즉, 우리나라 농수산물 수입의 절반 정도가 FTA를 통해 들어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협상 중인 FTA와 준비 중인 FTA까지 포함하면 수입 농수산물 대부분(96.5%)이 FTA 체제하에서 수입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수산분야 시장개방 압력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EU FTA가 지난해 7월 1일 발효되고, 한미 FTA도 발효가 임박해 옴에 따라 이들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들의 협상 타결 또는 재개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특히, 한미 FTA 발효 및 일본의 TPP 가입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적인 입지 위축을 우려한 중국은 한중 FTA 협상개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산업계에서도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이유로 협상개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 교역측면에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재배 품종도 비슷하여 다른 어떤 FTA 보다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FTA 추진 방향

우리나라는 '99년 칠레와의 FTA협상 개시 이후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 보호와 더불어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을 위해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철폐 장기화, 세이프가드 도입, TRQ(관세할당제도) 운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아울러 협상 결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어민 및 단체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협상관련 의견수렴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

FTA에 대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결과 일부 분야, 품목의 생산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한미 FTA는 기 체결된 FTA 중에서도 개방 폭이 가장 커 그 영향도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 FTA 타결 이후 호주, 콜롬비아 등 많은 나라들로부터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어 농수산물 민감성 보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호주, 콜롬비아, 터키 등 현재 추진 중인 FTA의 경우, 양국의 이익균형 및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중 FTA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FTA 체결시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 농어업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협상단계에 따라 충분히 마련하여 대응하고, 동시에 개방에 대비한 농어업의 체질개선도 병행하여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시장이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농식품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㉞